

<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

시편 55:12-18 / 새찬송가 26 (통일 14) 구세주를 아는 이들

1. 다윗이 당한 환난 중에 가장 다윗을 괴롭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블레셋이나 아말렉 같은 적군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늘 핍박했던 사울왕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괴로웠던 때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그와 함께 한 아히도벨이 반역했을 때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친여동생 다말을 겁탈한 이복형 암논을 복수를 빌미로 살해하여 왕위계승자를 찬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도 반역하여 다윗을 궁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때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과 다윗의 정치기반이었던 유다지파도 압살롬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난을 탄식했습니다(시55:12-14). 다윗의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때입니다. 이처럼 내 편이었던 사람의 배신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2. 고난당할 때 설상가상으로 여러 악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또 다윗이 쫓겨나갈 때 자기 주인이 다윗의 편이 아니라고 참소하며 주인의 재산을 가로챈 사람이나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먼저는 시바입니다. 시바는 므비보셋의 종입니다. 이 므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즉 적의 입장이었으나 다윗은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므비보셋을 살려주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므비보셋은 다윗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며 다윗을 왕으로 모시며 안전하게 지냈습니다. 시바는 그 므비보셋의 종이었는데 압살롬의 반역을 기회 삼아 다윗을 위하는 척 하며 주인 므비보셋을 참소하여 그의 재산을 가로챈습니다.

더불어 사울의 가문에 속한 시므이는 쫓겨 나가는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이려 했으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하며 시므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돌아왔을 때 시바와 시므이는 제일 먼저 나와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악한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시바의 참소를 당한 므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올 때 까지 수염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은채 있었습니다. 므비보셋은 그 명예를 지켰습니다.

3.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반역한 압살롬 편에 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의 모략처럼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편인 후새에게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을 위하는 척 있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후새는 다윗을 배신한척 하며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왕권을 굳게 할 계략을 말했습니다. 그 중에는 다윗을 없애기 위해 당장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공격하도록 해달라는 계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새는 아히도벨과 반대의 계략을 짜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용맹하니 온 이스라엘 지파의 군인들을 모아 다윗을 공격하자고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후새의 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전해들은 다윗은 압살롬의 공격을 대비하였고 요압장군을 시켜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와 우리문제를 위해 더욱 영적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악한 일의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천사장 미가엘과 천군천사가 와서 멸해주시도록 또 악한 계략을 꾸미는 악한 자들이 멸해지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적용&실천>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우리문제의 배후에 있는 악한 사탄마귀, 마귀의 권세,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미가엘 천사장이 이끄는 천군천사가 내려와 모두 멸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